

김학도 차관, 스마트공장 발전방향 간담회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최근 부산지역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발전방향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전 상임이사에 김성암 전 경남본부장



한국전력(대표 김종갑)은 4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총회를 개최하여 김성암 전 경남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전력그리드본부장(부사장)으로 임명했다. 김성암 부사장은 남주고등학교와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한전에 입사, 감사실 이상감사팀장, 남부건설본부장, 송변전건설처장, 경남본부장을 역임했다.

대한전기협회 신임 교학처장에 허연 씨



대한전기협회는 최근 신임 전력기술교육원 교학처장으로 허연 전 한전 인천·경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을 선임했다. 허 신임 처장은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한전 계통계획실장과 ICT인프라처장, 서울지역본부와 인천·경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장 등을 역임했다.

새내기임원 **클레이인터뷰** 김도균 현대일렉트릭 상무(회전기부문장)

'제때 돌리기'...회전기사업의 핵심가치

엔지니어 출신의 영업맨 '회전기 분야 개척자'

올해 임원으로 승진한 김도균 현대일렉트릭 상무는 사내에서 '회전기 분야의 개척자'로 통한다. 입사 후 줄곧 회전기 한 분야에서만 일했다. 엔지니어 출신의 영업맨으로 활약한 그는 2009년 영국 런던지사 주재원으로 있을 당시 유럽시장을 뚫으며 진가를 발휘했다.

김 상무는 "회전기 분야 엔지니어로 입사해 영업을 거쳐 20년 넘게 일해 온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며 "회전기부문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 전동기와 발전기 파트에 입사해 11년간 구조설계에 매달렸다.

"이제는 전동기만 봐도 구조가 떠오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2006년부터는 해외영업으로 보직을 옮겨 본격적인 '회전기 판매'에 뛰어 들었다.

"설계만 하다 보니 영업에 대한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처럼 보였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한 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영업직을 맡았습니다."

2009년 그는 운 좋게도 해외주재원으로

나가게 됐다. 영국 런던지사서 유럽을 상대로 회전기를 팔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유럽시장을 뚫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지만 '불굴의 현대정신'으로 극복했다.

"당시 프랑스에 현대상사 사무소가 있었는데 건너편 루이 비통(Louis Vuitton) 명품 매장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LV'인데 이게 저전압(Low Voltage)의 약자로 보이는 겁니다. 회전기도 'LV'로 통하죠. 명품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현대의

나에게 됐다. 영국 런던지사서 유럽을 상대로 회전기를 팔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유럽시장을 뚫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지만 '불굴의 현대정신'으로 극복했다.



회전기도 고객들이 먼저 찾는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래서일까. 현대의 회전기는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수준이다. 주로 산업용 펌프, 팬, 압축기 등에 사용된다. 공장이나 아파트, 배수장, 펌프장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다.

이때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 상무는 해외영업팀장을 거쳐 글로벌영업부서장 자리까지 올랐다. 유럽을 넘어 일본, 미국도 담당하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회전기부문장을 맡아 울산공장으로 내려왔다. 발전기와 전동기 설계·제조를 총괄하게 된 것이다.

그가 엔지니어로 다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에게 회전기사업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김 상무는 "기계를 돌려 산업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제때 돌리기(Rotate in time)'야말로 회전기사업의 핵심가치"라며 "이를 위해 납기준수, 품질경영, 생산성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직원들에게는 원칙과 책임을 기반으로 '세대 간 소통'을 강조했다.

"708090세대가 모두 일하는 현장인 만큼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스포츠데이를 통해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올해 회전기부문은 전년 대비 15% 이상의 매출신장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희 기자 xxi@

한전, 전기공학도에 장학금 10억 전달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사진)은 지난 2월 26일 나주 본사에서 '전기공학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기공학 장학생'은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교 성적과 가정형편, 사회공헌활동, 대내외 수상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신사업의 주역이 될 인재를 발굴하고 '좋은 인재를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825명에게 5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6% 늘어난 10억원의 장학금을 전국 73개 대학교와 10개 대학원의 우수학생 121명에게 전달했다.

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학생과 한전 직원 간 멘토링 협약을 맺고 전력산업계 실무 지식과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종갑 사장은 "에너지전환·디지털변환의 대전환기를 대비하는 전기공학도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와 공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행사로 진행됐다. 김종갑 사장은 페이스북에서 소개한 적 있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했으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최창봉 기자 ccb1970@

2019년 배전분야 전력기자재산업발전 포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신문은 2019년 한전의 배전분야 주요기자재 개발정보, 구매계획 등을 전기산업계에 알리므로써 관련 기업들의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한전 배전분야 전력기자재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19년 배전분야 전력기자재 산업 발전 포럼 (한전 배전기자재 구매계획 설명회)
- 일시 : 2019. 3. 15(금) 13시30분~16시30분
- 장소 : 한전 남서울본부 대강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7길 5) *주차불가
- 인원 : 200명 (선착순, 참가비 무료)
- 주최/주관
 - 주최 : 한국전력공사, 전기신문(공동주최)
 - 주관 : 전기신문

▶ 발표내용

시간	발표기관	주요내용
13:30~13:35	전기신문	행사개요 및 일정안내
13:30~13:40	한전 배전계획처장	인사말씀
13:40~14:10	한양대 김항경 교수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
14:10~14:20	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 시험연구원 운영계획
14:20~14:30	한전 중소벤처지원처	한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14:30~14:40	한전 상생협력처	빛가람 에너지밸리 지원사업
14:40~14:50	한전 설비진단처	배전기자재 고장분석 사례
14:50~15:00		Coffee Break
15:00~15:10	한전 지체처	'19년 배전기자재 구매 계획
15:10~15:20	한전 기술기획처	배전기자재 혁신 방안 추진현황 '19년 배전기자재 개발·운영 방안
15:20~16:05	한전 배전계획처	①개폐기/변압기 ②전선/케이블, 전주, 야차, COS ③절력량계 ④기타 기자재
	한전 배전계획처	
	한전 스마트미터링실	
	한전 배전계획처	
16:05~16:30		질의 및 응답

▶ 참가신청 : 전기신문 홈페이지(www.electimes.com) 접속, 좌측 배너광고 클릭 후 신청
▶ 참가자 기념품 제공(예정)

KETI, ADAS·라이다 등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

'지능형 자동차 기술 혁신 매치 메이킹' 개최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오는 7일 서울 엘타워에서 '지능형 자동차 분야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매치 메이킹 행사를 개최한다.



KETI는 능동적인 기업지원 을 위해 기업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요 연구 성과 및 역량을 산업계에 확산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기술혁신 매치 메이킹은 기업 협력 플랫폼의 일환으로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수요 기업 발굴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대표산업이라 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차 산업의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 밀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KETI가 주최하고 기술보증기금이 후원한다.

1부에는 KETI 우수성과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자율 협력 주행을 위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술 및 산업 전망 소개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용 다채널 스캐닝 라이다(LiDAR)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된다.

2부에는 다양한 차량용 핵심 부품 및 서비스로 ▲차량용 스마트 센서 기술 ▲스테레오 카메라 및 레이더 융합형 비전인식 시스템 ▲센서 기반 차량용 제스처 인식 시스템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 저장 및 암호화 기술 등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적용 가능한 대표 기술을 소개한다.

또 1:1 기술상담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 연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신산업 창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삼 KETI 원장(사진)은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편리함을 넘어 똑똑하고 안전한 지능형 자동차 분야로 생태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국내 기업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KETI가 보유하고 있는 ADAS 기술, 라이다 센서, 영상인식 기술, 암호화 기술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ETI는 AI, ICT 융합,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혁신 매치 메이킹' 행사를 연간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기자 igw909@

대한민국 '창의력 챔피언' 겨루자

특허청, 내달 24일까지 접수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9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참가자를 3월4일부터 4월24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5000여명이 참여하는 이 대회는 대한민국의 우수 창의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기 위한 자리다.

팀 단위(4~6명)의 참여 학생들이 세 가지 과제(표현과제·즉석과제·제작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 4개월간 전국의 발명교사들이 모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초·중·고 수준별 창의과제를 출제한다.

오는 6월8일 진행되는 시·도 예선 대회에서는 표현과제·즉석과제가 실시되고, 이를 통해 선발

된 100팀은 7월25일부터 3일간 본선포럼에 참가해 표현과제·즉석과제·제작과제를 해결하며 창의력을 겨루게 된다.

본선포럼을 통해 창의력, 과학원리 활용,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등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상위 36개 우수팀에 대해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본선포럼이 개최되는 기간 중에는 함께 열리는 '2019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서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전시, 발명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청소년 발명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력, 협동능력, 도전정신 등 미래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된다. 양진영 기자 camp@